

**연극 강아지똥**

극단을 모시는 사람들  
2025년 5월 24일(토) 14:00

**광대 탈놀이 판소리판**

연희집단 THE 광대  
2025년 7월 4일(금) 19:00

**놀이터\_음악화첩 愛  
Pisode 2025**

(주)예술순  
2025년 8월 23일(토) 15:00

**동화발레 벅조의 호수**

(사)서울시티발레단  
2025년 11월 7일(금) 19:00

영월문화예술회관



문화, 예술 - 만나다

# 공연예술지역유통 지원사업

무대는 더 이상 특정 도시의 전유물이 아니고,  
예술은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 연극 강아지똥

극단을 모시는 사람들

2025년 5월 24일(토) 14:00

영월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객석 점유율 84%

‘강아지똥’은 **故권정생** 작가의 베스트 셀러 그림동화 <강아지똥>을 연극으로 제작하여 지난 23년간 동화를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은 대한민국 대표 어린이 연극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교훈과 함께 강아지똥의 희생을 통해 만들레가 피어나는 장면은 모든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생명의 근본인 이타심을 배우게 합니다.

[연혁]

2025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유통 지역 유통사업 - 사전매칭 선정작  
2024 영국에든버러프린지페스티벌 아시아인어워즈 최우수공연상 수상작  
2024 춘천인형극제 국내초청작, 지역맞춤형 중소규모모던츠 유통 선정공연  
2023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 지원사업 선정작  
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선정작





INTERVIEW

“공연을 기다리는 순간도

즐거웠으면 했어요”

극단모시는사람들  
기획자 강현하

안녕하세요. 극단 모시는 사람들에서 기획을 맡고 있는 강현하입니다. 이번 영월문화예술회관 공연유통사업에서는 공연 관람 이전부터 관객분들이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로비 체험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작품 강아지똥의 상징인 대형 민들레 조형물을 전시하고, 극 중 인물과 캐릭터 등신대를 배치해 공연의 분위기를 미리 느끼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클레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권정생 선생님 대역 배우 조준영 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남기실 수 있는 포토존도 준비했습니다. 공연을 기다리는 시간마저 하나의 즐거운 경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영월 군민 여러분께서 즐겁게 관람해 주신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극단모시는사람들

배우 남희진

연극 강아지똥에서 민들레 역을 맡고 있는 남희진입니다. 매 공연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과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들레의 진실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고민과 노력들이 배우로서 저를 조금씩 성장시키고 있다고 느낍니다. 관객분들께서 민들레의 마음을 함께 느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장면은 공연의 시작 부분입니다. 원작에서는 흰둥이가 틀담 앞에 똥을 싸는 간결한 묘사로 지나가지만, 연극에서는 그 이전의 행동들과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강아지똥이 탄생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그 장면이 공연의 문을 여는 순간처럼 느껴져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 극단모시는사람들

배우 안중현

이번 연극 강아지똥에서 강아지똥 역을 맡은 배우 안중현입니다. 작품의 주요 관객이 어린이이다 보니, 반응이 매우 즉각적이고 솔직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 관객들에게 저희의 마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은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며 감정을 담아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연을 통해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강아지똥이 민들레를 만나는 장면을 가장 인상 깊은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짓밟혀왔던 강아지똥이 민들레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연기할 때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저 자신의 모습과 강아지똥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가장 애정하는 장면입니다.



### 시민 인터뷰

상지윤

그림책으로만 보던 이야기를 극장에서 볼 수 있고 특히나 이렇게 영월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되게 내용이 유익하고 정말 구성을 잘해주셔서 가지고 즐거운 관람이 됐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 광대 탈놀이 판소리판

연희집단 THE 광대

2025년 7월 4일(금) 19:00

영월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객석 점유율 54%

'판소리 다섯 마당'에 비추어보는 지금의 이야기  
 신분질서, 강요된 정절, 충효를 위한 자기희생, 일확천금의 욕망, 시대가 변해도 계속 존재하는 판소리 다섯 마당 속 편협한 이야기를 광대 거지들이 등장해 유쾌한 '판소리'로 판을 깬다.  
 어울려 노는 경계 없는 연희판  
 마당에서 경계 없이 어울려 놀았던 옛 연희의 모습처럼 관객이 극에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더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고 광대의 탈춤, 풍물 진법, 재담에 함께 흥을 주고받으며 연희자와 관객이 구분 없이 어울려 노는 환상

### [연혁]

- 2013 문화체육관광부 창작연희 작품공모 '광대 재담극 <자라>' 대상
- 2016 전통연희페스티벌 거루기 한마당 '버나' 부문 으뜸상(대상)
- 2022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창·제작유통지원사업 국립정동극장 <초월> 열력 단체(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외 3곳)
- 2022 ACC 아시아콘텐츠 공연개발 공모사업 선정 <고래씨 이상해> 쇼케이스(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 2023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 선정 <판소리판>
- 2023 청와대 초청공연 <노는 놀이는 놀이는 놀이>
- 2023 전국공연예술진흥재단 우수작품 제공연 지원 선정 <당골포자>



## INTERVIEW 연희집단 The 광대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광대 탈놀이 <판소리 판> 공연을 선보이게 된 연희집단 The 광대입니다. 대표 안대천, 공연팀장 김용훈, 기획팀장 손다운입니다.

### 단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연희집단 The 광대는 전통연희를 기반으로 창작연희극을 제작하고 있는 공연단체입니다. 전통연희를 전공한 아홉 명의 연희자가 함께 모여 창작과 고민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로 20년의 시간을 쌓아온 단체입니다.

###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저희는 풍물, 탈춤, 무속 등 전통연희를 기반으로 다양한 창작 공연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의 극장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 학교, 축제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관객분들과 만나며 웃음과 에너지를 나누는 것에 큰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2025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유통 지원사업을 통해 극장과 예술단체가 사전 매칭으로 지역 관객을 만날 수 있다는 기회를 접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작품은 전통 탈놀이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창작 공연인 만큼, 평소 접하기 어려운 지역 관객분들과 만나 전통연희의 매력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러한 취지 속에서 영월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공연을 진행해 오셨나요?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크게 3가지의 방식을 통해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국가 또는 지역의 재단에서 후원하는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되면 투어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 유통 지원사업, 이전에 진행되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 등을 통해 지역의 극장, 복지관, 아파트 등과 매칭되어 진행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의 축제에서 우수한 작품을 모집 공모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년 광대의 소식을 전국의 관계자분들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된 자료를 기반으로 초청되어 지역의 공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진행된 공연을 보시고, 저희 광대팀을 좋게 봐주셔서 공식 연락처를 수소문해 초청 연락을 주셔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유통 플랫폼이나 네트워크가 더 활발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작품의 유통과 단체와 극장 사이의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에서는 좋은 작품을 전국적으로 소개하고, 극장에서는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거나 소개서를 받아 지역의 관객에게 필요한 작품을 선정하여 기획공연을 올리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면으로 네트워크 하는 것을 넘어 비대면, 즉 온라인으로 네트워크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체는 좋은 작품을 홍보하고, 극장은 단체에게 직접 대화를 걸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완성된다면 더욱 활발히 네트워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15시  
공연장

"따뜻한 삶의 멜로디"

**예술숲**  
대표 김면지

음악 그룹 놀이터의 '애피소드' 공연은 우리의 따뜻한 삶을 주제로 창작음악으로 풀어낸 무대입니다. 놀이터가 그동안 추구해 온 대중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풍속화적 이미지와 이야기들을 엮어 관객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일상의 감정과 온기를 담아낸 대중친화적인 공연입니다. 특히 놀이터의 곡 가운데 'Fly to the Sky'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곡입니다. 바로 한태수 작곡가의 '아름다운 나라' 원곡을 기반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스태프와 연주자 모두가 깊은 전율을 느꼈고, 음악을 통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이번 공연에서 가장 인상 깊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시민 인터뷰**

국악 전공생이어서 평소 국악에 관심도 많고, 합주를 하다 보니까 놀이터라는 그룹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됐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더 폭넓은 국악을 저희가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을 얻은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사실 제 가장 최애곡이 함박웃음을 지으며 걷다 그리고 라는 곡인데요, 이게 언제 나오나 한참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너무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되게 열을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저한테 악기를 불고 있는 사람으로서 웃으면서 공연을 하는 이런 순간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하는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음악의 악이 즐길 략자 아니겠습니까



## 은 가족 힐링 동화발레\_백조의 호수

(사)서울시티발레단

2025년 7월 4일(금) 19:00

영월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객석 점유율 95.18%

차이콥스키의 음악 선율로 아이들의 상상력 자극  
클래식의 명곡인 차이콥스키의 음악 선율과 아이들의 상상력  
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발레 동작들이 어우러져 아이들은 물론  
성인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작품 <백조의 호수>

무대 위 배역별 리얼한 목소리 연기과 내레이션을 통해 작품의  
이해와 상상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무대와 관객이 서로 교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 [연혁]

- 2019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전막 초연
- 2019 종로어린이극장 기획공연
- 2019 신나는 예술여행 "나주 오아시스 페스티벌" 초청공연
- 2019 송주시 초청공연 "호암 체육관"
- 2020 순천문화회관 방방곡곡 사업 초청공연
- 2021 사천문화재단 기획공연
- 2021 서울 금천문화재단 기획공연\_아리랑 TV 촬영
- 2022 노원문화재단 창작활동 지원사업 선정 기획공연





INTERVIEW

“무대 위의 클래식,  
영월에서 피어난 발레”

서울시발레단  
단장 김광진

안녕하세요. 서울시발레단 단장 김광진입니다. 서울시발레단은 2009년 창단 이후 다양한 클래식 발레와 완성도 높은 창작 레퍼토리를 선보여 온 단체입니다. 각 예술 분야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레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목표로 꾸준히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예술법인 지정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월을 찾았을 때, 발레 공연이 자주 올라가지 않았던 극장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무대가 관객분들께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작진과 함께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발레를 처음 접하는 관객분들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클래식 발레에 내레이션, 비보잉 등 다양한 장르를 융복합해 보다 친숙하게 구성했습니다. 오늘 백조의 호수가 관객 여러분께 작은 심과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시민 인터뷰

홍미연

안녕하세요 영월에서 17년째 살고있는 영월 주민 홍미연이라고 합니다. 17년 동안 살면서 사실 영월에서 발레공연은 처음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발레공연을 비롯한 좋은 공연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 인터뷰

이번 서울시티발레단이 오셔서 문화혜택을 영월군민한테 주셨는데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도시에서 이런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복을 얻어서 너무 좋습니다.



#### 시민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발레리나가 되고싶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기엄마입니다. 아이랑 처음으로 발레공연을 봤는데요. 제가 영월에서 많은 공연을 많이보고 오히려 더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공연을 볼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연 많이 많이 준비해 주셔서 늘 아이와 저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예술은 누구에게나 닿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장애인의 문화예술권」

(재)영월문화관광재단  
영월군장애인협회  
(주)살롱더스트링

# 라컨투어 콘서트 〈피어나는 결〉



‘2025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은 문화시설과 콘텐츠, 공간과 정보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접근성의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물리적 문턱뿐 아니라 심리적, 정보적 장벽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 접근성 강화를 통해 장애인 관객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고, 모두를 위한 문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무대는 더 넓어지고, 관람의 방식은 더 다양해집니다. 수어 통역, 자막, 음성해설, 점자 안내서, 편의시설은 물론,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을 중심에 둔 변화는 예술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엽니다.





무장애문화향유활성화지원사업

## 무장애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즉 물리적·정보적·심리적 장벽을 없애고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 접근성이란?

“접근성은 개인의 능력, 환경, 조건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 또는 그 상태를 말한다.”

모든 사람이 제약 없이 서비스·공간·정보·콘텐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으로 특히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접근성 강화교육<문턱 낮추기>

#### 교육목표

사업 참여기관 관계자의 접근성 역량을 내재화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에 대해 습득하여 문화시설의 접근성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

#### 교육대상

영월문화관광재단, (사)영월군 장애인협회, (주)살롱디스트링  
접근성 안내 스태프 및 장애인 모니터링단



### 장애인 모니터링단 <무(無)턱단>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 콘텐츠, 정보에 존재하는 ‘문턱’을 발견하고 낮추는 활동을 수행하는 접근성 장애인 모니터링단입니다.  
‘무턱’은 ‘장벽 없는 세상’에 대한 상징이며, 무턱단은 문화시설과 예술 현장을 직접 탐방하고 점검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포용적 문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구성인원 : 5명

#### 모니터링 방법

-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여 사전 공연 준비 과정과 관계자들의 참여도 및 이해도에 대해 평가
- 공연장 내·외부의 접근성 관련 사항을 관찰하고 기록
-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개선 방안 제안



### [라컨투어 콘서트 <피어나는 결>

-장르 : 스토리텔링 공연

-공연일시 : 2025년 11월 5일(수) 10:00 / 14:00

-주제 : 조선시대 영월에 유배를 온 단종과 정순왕후 이야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동등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맞춤 설계된 참여형 스토리텔링 공연으로 지역의 역사 자원과 음악, 언어로 풀어내며 장애 유무를 넘어 함께 듣고, 참여하고, 감정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 무장애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고 지역 예술의 감수성과 접근성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

그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이,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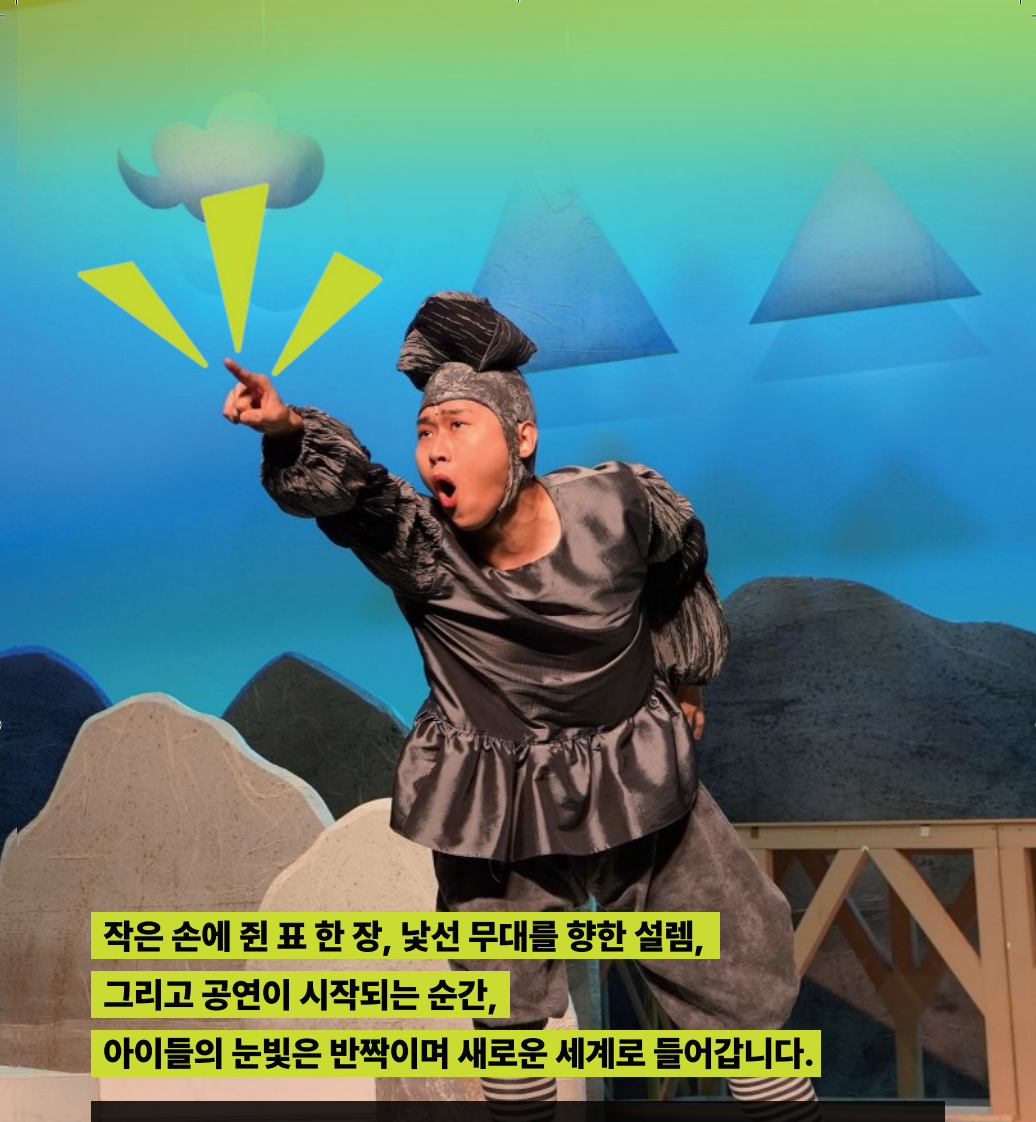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이트 QR코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KDACC)은

장애 예술인의 창작과 문화 향유 지원, 장애 예술 생태계 조성, 장애·비장애 예술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의 대표 공공 기관입니다.

문화, 예술\_만나다 어린이를 위한 문화공연 '강원ART박스' 공연단





**작은 손에 쥘 표 한 장, 낮선 무대를 향한 설렘,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  
아이들의 눈빛은 반짝이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2025 어린이를 위한 문화공연 지원사업 - 강원 ART박스 공연단'은 문화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원 도내 문화소의 지역을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하는 찾아가는 예술 선술입니다.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삶의 초입에서부터 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어린이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사업의 시작점이자 지향점입니다.

연극, 음악, 인형극, 무용 등 어린이의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연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된 강원 ART박스 공연단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함께 느끼고, 생각하고, 꿈꾸는 무대'를 만듭니다. 예술은, 모든 아이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오늘 이 작은 무대가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첫 예술의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 연극 동백꽃

### (사)문화 프로덕션 도모

장차자와 매개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간 중심적 문화예술 기업으로서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 간, 사람과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다각적 상호 이해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동시대의 가치를 담은 창작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사람과 예술, 삶과 꿈을 이어 세상을 따뜻하고 윤택하게 한다.

- 장 르 연극
- 일 시 2025년 8월 12일(화) 10:00, 13:30
- 장 소 영월문화예술회관
- 관람료 무료

항토성과 해학이 넘치는 김유정의 소설이 연극 무대로! 강원도 대표 작가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을 연극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신분이나 계층을 넘어서 사춘기의 소년과 소녀가 사랑에 눈뜨는 과정을 김유정 특유의 서정성과 해학성으로 밀도 있게 묘사하고 있다. 심술쟁이 '점순이'의 역설적 애정 표현과 그것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순박한 '나'는 작품의 흥미는 물론 극적 긴장감을 더해준다. 나는 점순네 소작인의 아들이다. / 얼마 전 점순이가 감자를 찾지만 밭이 없었다. / 그 이후로 점순이는 매일 우리 집 닭을 괴롭힌다. / 항상 힘센 자기네 수탉으로 우리 집 약한 수탉을 괴롭히는 점순이. / 나는 우리 집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고 다시 도전장을 내린다. / 처음엔 새침한 줄 알았던 점순이가 왜 자꾸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걸까? / 나는 도무지 점순이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다.



## 음악극 호호!감자전

### 음악공장

음악공장은 강원도 지정 전문예술법인으로, 전통문화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전통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장 르 뮤지컬
- 일 시 2025년 9월 23일(화) 10:00, 13:30
- 장 소 영월문화예술회관
- 관람료 무료

강원도의 대표 특산물인 감자가 귀엽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변신해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도깨비를 물리치는 신나는 모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느낍니다. 감자 친구가 되어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유쾌하고 흥미로운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통예술을 놀이와 음악극으로 놓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전통의 세계!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전통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도깨비의 뿔을 얻기 위한 주인공의 여정! 이 모험에는 어린이 관객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공연 속 주인공과 함께 노래하고 움직이며, 직접 이야기 속에 참여하는 특별한 예술 경험을 즐겨보세요. 여러분도 모험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었나요?





[문화, 예월 - 만나다]

# 2025 강원도립극단 흥위의 벗

무대 위에 스며든 영월의 시간, 강원도립극단 기획공연 <흥위의 벗>이 영월에 남긴 것



강원문화재단,  
영월문화관광재단  
공동주관

2025 강원도립극단  
기획공연  
**「흥위의 벗」**

단종과 임흥도의 신분을 초월한  
우정 이야기

소요시간 : 90분

관람연령 : 8세

관람료 : 전석 10,000원

\*청소년 단체 관람은 전석 무료





공연이 시작되기 전, 영월문화예술회관 로비에는 조용한 기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역사 속 인물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고, 누군가는 오랜만에 만나는 연극 무대 앞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불이 꺼지고, 무대 위에 첫 장면이 펼쳐지는 순간,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시간의 문턱이 되었다. 강원도립극단 기획공연 <홍위의 벗>은 그렇게 영월의 밤에 오래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불러냈다.

<홍위의 벗>은 조선의 비운의 왕 단종과,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킨 신하 엄흥도의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역사 속에서는 짧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두 사람의 관계는, 무대 위에서 깊고도 섬세한 감정의 결로 펼쳐졌다. 권력과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내려 했던 신념.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정치사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 존재인지 묻는 질문처럼 다가왔다. 특히 단종이 영월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이곳에서 상연될 때 더욱 강렬한 공간적 의미를 만들어냈다. 무대 위의 장면 하나하나가 영월의 풍경과 겹쳐지며, 역사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와 연결된 기억이 되었다. 이 작품의 중심에는 창작 집단 기림박수가 있다. 기림박수는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이 지닌 서사를 바탕으로 창작극을 만들어 온 프로젝트형 예술집단이다.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극단 '안녕팩토리'와 '치약무대'가 협업해 결성된 이 팀은, 지역의 이야기를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관객과 공명할 수 있는 연극 언어로 새롭게 번역해왔다.

<홍위의 벗> 역시 그러한 작업의 연장선 위에서 태어난 작품이었다. 강원도립극단과 기림박수의 협업은 단순한 외주 제작이나 일회성 공동작업이 아니라, 강원 창작극의 가능성을 함께 실험하는 과정이었다. 도립극단의 배우와 제작 인력, 기림박수의 창작진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대는 개인의 역량을 넘어 집단의 기억과 상상으로 완성되었다. 연출과 배우, 무대와 영상, 음악과 움직임이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의 감각으로 불러내는 일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다. 수록화처럼 번지는 영상 이미지와 전통적인 의상과 소품, 그리고 배우들의 움직임과 목소리가 겹쳐지며, 이야기는 시각과 청각을 넘어 관객의 감각 전체로 스며들었다. 이는 강원도의 이야기가 더 이상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동시에 공연예술로서 충분한 깊이와 미학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도립극단의 기획공연이 지역의 공연장에 오른다는 것은, 예술이 특정 도시나 중심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영월의 관객들은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강원 공연예술의 현재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은 단순히 한 편의 연극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를 다시 마주했다. 무대 위의 단종과 엄흥도는 역사책 속 인물이 아니라, 영월의 바람과 산자락, 그리고 이곳에 켜켜이 쌓인 기억과 함께 살아 있는 존재로 다가왔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한 관객들의 모습 속에는, 이야기가 아직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흥위의 벗》이 영월에 남긴 것은 박수와 감동만이 아니다. 그것은 이 지역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많은 무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가능성이었다. 강원도립극단과 기림박수, 그리고 영월문화예술회관이 함께 만든 이 밤은, 영월이 공연을 ‘보는’ 도시를 넘어, 이야기를 ‘품고 키워가는’ 문화의 공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발걸음 위에는, 앞으로 계속 새로운 무대와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다.



2025 지역 간 우수 문화예술 교류·협력사업



# 응답하라 학창시절 금정문화재단

7080시대 남학교 학생들의  
"추억과 음악이 어우러진 학창 시절의 이야기"

# 음악극 「응답하라, 학창시절」 부산에서 영월까지, 웃음과 추억이 흐른다.

이번 사업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예술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재)금정문화재단과 (재)영월문화관광재단이 협력하여 부산 지역 우수 예술단체 해피앙상블의 음악극 <응답하라 학창시절>을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초청 공연하는 문화교류형 사업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이야기로 음악과 우정, 첫사랑, 가족, 꿈이 어우러진 이 작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다. 1980년대 어느 마을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유쾌하고 진한 학창 시절 이야기가 펼쳐진다.


교문에서 지각 단속을 서는 두 학생은 매일 같이 지각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으며 티격태격하지만, 속 깊은 우정을 노래로 나눈다. 어제 봤던 '세시봉 콘서트' 이야기를 나누며 흥내를 내기도 하고, 흘러나온 노래에 맞춰 함께 연주하며 웃음꽃을 피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유일한 여학생의 노래를 듣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 짝사랑을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소년들. 그러나 그녀가 서울로 간 것을 '이사'라고 오해하고는 깊은 아쉬움에 빠진다. 하지만 곧 서울에서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하며, 남학생들 역시 자신들도 노래 한 번 해보자며 추억의 소풍 노래들을 부른다.

"너희는 공부 안 하나?"는 친구의 물음에 "우리는 특별한 공부, 예술을 한다"고 당당히 외치며, 부모님을 어렵게 설득한 이야기까지 털어놓는다. 그리고 어느새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해가며, 아버지가 어머니께 들려주던 노래를 함께 부르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을 표현한다. 이야기의 끝자락,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관객들에게 깜짝 제안한다. "혹시 학창시절 무대에 서보고 싶으신 분 있나요?" 무대는 관객과 하나가 되고, 다 함께 부르는 즐거운 노래들로 음악극은 따뜻하게 막을 내린다.



## 해피앙상블

- 2022년에 창단된 남성중창단.
- 클래식한 목소리로 오페라 합창, 대중음악 및 가곡, 민요, 영화음악, 팝송, 성가곡, 동요, 예술합창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



• 예술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Venus Project》는 AI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는 전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긴다.

창작은 어디까지가 인간의 몫일까.

도구는 언제 예술의 일부가 되는 걸까.

우리는 기술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전시장 안에서 시는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는 다시 관람객의 생각으로 변해간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결국 예술은, 여전히 사람의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것.